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음 3월 4일) 제17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경제인들, 대선공약 과제 제시

새만금 정부주도 사업추진
매년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전북지역 독자권역 선정
군산조선소 준치 지원 등
27개 세부 과제 반영 호소



전북지역 경제단체들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전북도 경제인들의 대선공약 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만 전북도민과 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이번 만큼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북지역 경제계 및 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외와 홀대 배양 끝에 불탄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전북은행,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전북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등 도내 경제기관 및 단체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전라북도 경제인들의 대선공약 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등 총 10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원,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 지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조속 추진 등의 총 8가지 과제를 주문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우리 전북은 60년대 이후 정부의 거점개발 방식에 뒤로 밀려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며, “때로는 정권탄생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요, 소외된 땅으로 남은 현실에 시름과 좌절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하는 전북지역 현안 과제들은 타지역에 대해 대단한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50여년 동안 빼앗긴 전북의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며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의 주장이 대선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인재용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습니다.

해수부 “세월호, 오늘 오전 7시 목포신항 출발”

세월호가 시범인양에 착수한지 열흘 만인 31일 오전 7시 최종목적지인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0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은 해역 여건 등을 감안해 선장과 협의 하에 31일 오전 7시에 목포신항 출항부두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목포신항까지의 거리인 105km를 이동하는데 약 8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세월호는 31일 오후 3시에 목포신항 출항부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전날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 탈 제거와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하기 위해 오전 8시50분부터 잔여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거해야 하는 날개 탈 4개 중 3개를 제거했다. 이날 자정까지 나머지 날개 탈 1개 제거 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제거했던 날개 탈 하단의 받침대를 제거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마쳤다. 제거한 날개 탈은 달리하오의 해상크레인(2500톤)을 이용해 짙 김바지선에 다시 설치했다.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세월호 선체-리프팅 빔 간 22개소, 리프팅 빔-지지대 28개소, 총 50개 중 44개 용접 작업을 끝냈다. 고박 작업은 오후 10시 전후로 완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용접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씩 갑판에서 나오는 기름성분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은 평균 시속 4~5노트(시속 약 10km)로 항해할 예정이다.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했던 부분을 분리한 뒤 고중량용 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456대의 도움을 받아 세월호를 육지에 거치한다. 육상 거치 기간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목포신항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현장수습분부를 가동했다. 인력 100여명으로 구성(5만 9천)된 합동 현장수습분부는 미수습자 수색, 신원 확인 및 장례지원, 유실물 관리, 가족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뉴스

정읍 ‘임계기사’ ‘일제 이항 묘비’

오늘부터 전북 유형문화재 지정

정읍의 ‘임계기사’와 ‘일제 이항 묘비’ 3월 31일자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유형문화재 제245호 지정된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정읍에 거주하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암과 은봉암, 비래암으로 옮겨 370여 일 동안 지켜내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1997년 등재)인 조선왕조실록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유형문화재 제246호로 지정된 ‘일제 이항 묘비’는 호남의 대표적 성리학자 일제 이항선생 묘소에 1577년 세워진 비석이다. 이항선생의 행적과 학문, 당대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노수신이 비문을 짓고 당대의 명필가 송인이 글을 쓴 묘비로 금석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2건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정읍시는 국가 지정 16건, 도 지정 66건, 등록 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13건 등 총 113건의 유·무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계기사

이항선생의 행적과 학문, 당대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노수신이 비문을 짓고 당대의 명필가 송인이 글을 쓴 묘비로 금석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2건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정읍시는 국가 지정 16건, 도 지정 66건, 등록 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13건 등 총 113건의 유·무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홍보

전북대 진수당서 도내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개최

호남권역에서는 단독으로 3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도내 대학생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권역별 6개 시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전북도에서 진행됐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도내 청년들에게 유망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정보 및 취업기회 제공을,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고급인력 확보와 기업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0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도 오는 10월 12~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기업별 인사담당자와의 채용상담을 통한 취업정보 습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대학생들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참가기업은 Global Fortune 500 및 동종업계 선두 외투기업 7곳

으로, 기업별 채용계획 등 설명회와 현지 인사담당자와의 열띤 채용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수시채용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외국계기업 특성상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여 추후에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채용분야는 전자기계 및 산업자동차 엔지니어, 인재개발 및 아웃소싱, 은행업무, 시험 검사 서비스업 등 다양했으며, 모집 전공분야는 전기/전자, 기계공학 등 이공계, 상경계 등이며, 전공 무관하게 우수한 학생을 원하는 기업도 고루 섭외돼 많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진용 도 국제관계대사는 “오늘 채용설명회가 학생들에게 기업의 채용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의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